

민주당, 오늘 의총 ‘합당 분수령’ ...정청래 ‘출구’ 찾나

‘지방선거 전 반대’ 의견 속출 당청 이상기류 속 ‘강행’ 부담 논의기구 등 리더십 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키로 하면서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

의 결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내에선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조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론에 강제로 당사자들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강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매우 작아졌다”며 “정 대표가 애초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 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가 훨씬 많은 것 같다”며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을 내고 “합당 제안이 당 안팎의 혼선과 중도층 이탈을 키우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탈선한 ‘당권 기관차’의 폭주를 멈추고 국정 책임지는 여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의총에서도 이어진다면 정 대표가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여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질타성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이상 기류가 감지된 상황도 정 대표로선 당초 구상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당 대표로서 친명계가 반대하는 ‘지선 전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다.

이에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확인된 만큼 정 대표가 합당을 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일각에서 요구한 합당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는 지금까지 들었던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며 “큰 차이가 없는 팽팽한 정도의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전남도의회 “통합 국립의대 2028년 조기 개교해야”

신민호 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도민 생명권 지키는 골든타임”

전남도의회가 전남 통합 국립의대의 2028년 조기 개교를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제관광문화위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2028년 개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잠정 결정할 것과 관련,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감안해 개교 시점을 2년 앞당긴 2028년으로 확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원은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전남의 의료 취약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신설 정원을 잠정 결정할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의료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시간을 고려할 때 2030년 개교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의료 체계를 회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은 2028년 개교다”며 “개교가 지연될수록 의료 인력 배출과 지역 정착 효과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

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원칙은 조속한 개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의료 취약도가 가장 높은 전남에 개교를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의료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 통합 국립의대 2028년 개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정책 원칙을 구현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6·3 지방선거 승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수진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 현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 의원, 여성 당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에서 ‘지선 승리, 여성 공천 30%’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전남도당 “재정·권한없는 행정통합은 반쪽”

“진정한 지방분권 초당적 협력”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9일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은 간판만 바뀐 행정통합 소에 불과하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엔커녕 더 깊은 좌절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확

히 답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지금 논의되는 전남광주 특별법은 통합의 이름만 있을뿐 내용은 초라한 반쪽짜리 통합에 불과하다”며 “인공지능·에너지·농수산 산업 인허가권 이양, 국가산단 예타 면제,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줄줄이 배제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은 중앙부처의 수용불가로 기대권의 벽 앞에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통합의 대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주도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없이는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은 이벤트가 아니라 백년대계”라며 “이번 특별법이 누더기 법안, 껍데기 통합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박현숙 도의원 “정부,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해야”

전력망 확충 38% 호남 집중 “도민 생존권·환경권 침해”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9일 “전남도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

획이 전남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 중 약 38%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전남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계획된 송전선로 사업은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등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익은 수도권 기업이 독점하고 위험은 지방이 감수하는 명백한 ‘에너지 식민지화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남을 관통시키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전력이 풍부한 전남 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을 이전시키는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구례군수 출사표” 이현창 도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의 저서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는 언어처럼’ 출판기념회가 지난 8일 구례군 섬진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회는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정립한 구례의 발전 방향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고찰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소

통의장으로 진행됐다.

출판기념회에 이어 진행된 ‘북토크’에서 이 의원은 풍력 에너지 기본소득 등 선진

강과 지리산을 품은 구례의 잠재력에 기반한 고향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주민들의 눈빛에서 구례의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을 읽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책에 담은 비전들이 구례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례군수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근산 기자

www.goldclass.co.kr

다. 현재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려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